



재보험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임준 연구위원

요약

국내 재보험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재보험 해외 수지차에서 지속적으로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역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보험산업 발전전략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특화 재보험회사를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전략을 제안함. 글로벌 특화 재보험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규제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력정책의 경우 공학에 기반을 둔 리스크 평가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함

- 국내 재보험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언더라이팅, 가격결정, 상품개발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재보험 해외 수지차에서 지속적으로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재보험 해외 수지차는 2017년 -3,892억 원, 2018년 -1,327억 원, 2019년 -5,146억 원, 2020년 -4,3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¹⁾
 - 국내 전업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의 국내 수재 의존도는 2020년 기준 75.6%로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수재하고 있는 실정임
 - 2020년 기준 코리안리의 국내외 총 수재보험료는 약 8조 3,742억 원이고, 이 가운데 국내 수재보험료는 약 6조 3,320억 원임
-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학의 무역정책(Trade Policy)과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금융규제당국은 2018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세부 추진방안의 하나로 국제 수준의 재보험 감독체계 마련이 포함되어 있었음²⁾
 - IFRS17 도입, 해외 법규 등을 감안하여 재보험 인정 요건·범위, 건전성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음
 - 먼저, 과도하고 무분별한 재보험 출재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최소보유비율 규제 등을 도입하였고, K-ICS 도입 일정과 연계하여 재보험 출재와 관련한 정밀한 리스크 평가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1) 재보험 관련 통계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 촉진 [2단계: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

- 2020년에는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재보험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재보험업 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음³⁾
 -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구분하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현행 300억 원에서 그 이하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외에도 금융규제당국의 구체적 정책 발표가 있지는 않았으나, 재보험허브 조성을 통한 재보험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⁴⁾
-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①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② 내부 규모의 경제(Internal Economies of Scale)로 구분해볼 수 있음⁵⁾
 - 외부 규모의 경제는 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부 규모의 경제는 개별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산업 내에 제품을 100개씩 생산하는 기업이 10개인 경우보다 20개인 경우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면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100개를 생산하던 기업이 200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내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임
- 특정 지역에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집적해있는 경우 외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실리콘밸리의 IT산업, 뉴욕의 금융산업, 할리우드의 영화산업 등이 해당됨
 - 외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전문화된 공급업자(Specialized Supplier), 공동노동시장(Labor Market Pooling),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집적해있는 지역을 클러스터(Cluster)라고 하는데, 클러스터의 형성은 역사적 우연성과 정책적 노력에 의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 클러스터가 형성된 예로는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이 있고⁶⁾, 역사적 우연성과 정책적 노력이 결합된 예로는 싱가포르의 재보험산업이 있음⁷⁾
- 특정 산업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국제경쟁력 원천과 관련된 내부 규모의 경제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범위(Scope)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 발표”

4) 김현수(2014), 『싱가포르 재보험허브 성공요인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

5) 국제무역에서의 경쟁우위 관련 이론적 논의는 “Paul R. Krugman and Maurice Obstfeld(2003),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6th edition, Addison Wesley”에서 인용함

6) 영화산업 초창기에는 주로 야외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촬영하기에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던 할리우드가 영화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음. 그 후 실내 촬영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외부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할리우드는 오늘날까지도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남게 되었음

7) 김현수(2014), 『싱가포르 재보험허브 성공요인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용역보고서

- 첫 번째는 다각화(Diversification)를 통해 기업의 영업 범위가 매우 넓은 복합기업(Conglomerate)으로, 이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규모를 늘림
 - 첫 번째 유형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국가챔피언(National Champion) 전략이라고 함⁸⁾
- 두 번째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Specialization)된 특화 기업으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음
 - 두 번째 유형의 기업을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함⁹⁾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재보험산업 발전전략 방안으로 히든챔피언 전략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 재보험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거대 보험회사를 육성하는 국가챔피언 전략은 국내시장 규모가 큰 미국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부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재보험허브 정책은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 적합한 발전전략으로 판단됨

○ 글로벌 특화 재보험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전략의 세부방안으로 인가단위 세분화를 통한 진입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인력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부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두든 내부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두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점(Preemption)이 중요한데¹⁰⁾, 이를 위해서는 후발 주자의 경우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함¹¹⁾
 - 특히, 인력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보험산업은 수학과 통계학에 기반을 둔 계리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학(Engineering Science)에 기반을 둔 리스크 평가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함

8) Oliver Flack, Christian Gollier, and Ludger Woessmann(2011), *Industrial Policy for National Champions*, CESifo Seminar Series, The MIT Press

9) Hermann Simon(2009), *Hidden Champions of the Twenty-First Century: Success Strategies of Unknown World Market Leaders*, Springer

10) Paul R. Krugman and Maurice Obstfeld(2003),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6th edition, Addison Wesley

11) 장하준(2020), 『사다리 건너차기』, 부키